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치문화적 특성 연구

강순남*

이 글은 2017년 조기대선이후 부각된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치 참여 특징-참여 요인, 참여유형, 이념, 민주주의 의식, 정책 선호와 조직-을 분석하고 지지자들의 정치 참여 행위가 정치문화의 단면-다원적 민주주의의 주권자인 시민-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일반적 특장을 토대로 소수의 대상자들과의 릴레이 소개와 면접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취했다.

분석결과, 첫째, 인지 정향성. 이들은 노무현대통령 서거의 충격과 문재인대통령의 등장이 정치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인지적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활동의 요인이었다. 두 번째, 대의민주주의. 시민의 역동적인 정치참여에 비해 대의정치의 취약성에 대한 기존의 우려와는 달리 대의제를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얻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셋째, 스마트형 시민. 지지자들은 인터넷에 능숙하며 인터넷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대통령과 국가 정책에 대한 지지, 홍보, 반론을 전개하며 이에 견주는 상당한 지식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넷째, 이념의 복잡성. 탈이념,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며 사회적으로는 진보 성향을, 경제적으로는 보수 성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정치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치문화 현상의 단면인 반면 참여 모티브는 공공성에 기반 한 민주주의 정체의 본질적 정치 참여 보다 개인을 향한 충성심을 토대로 공공성으로 접근하는 참여로 정치 영역의 파벌화,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이들의 정치참여가 새로운 정치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행위의 지속성이 축적 되어야 하며 더불어 환경적 요인도 중요한데 그것은 정치권의 이해와 수용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의 융화 여부이다.

Ⅰ 주제어 Ⅰ

정치참여, 행위자. 대통령지지자, 정치문화, 민주주의

* 성공회대학교대학원 박사수료

I. 서론

오랜 기간 군부 독재의 권위적 정권으로 인해 권위주의적이며 엘리트 주의였던 한국사회 정치문화는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그 색채가 없어졌다.¹⁾ 1987년 6월 항쟁은 비록 군부정권을 종식하지 못한 미완의 성과일지라도 대통령 직선제 실시와 시민사회 활성화 측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의미의 역사적 출발이었다. 이즈음 정치문화 변화는 서구사회에서도 감지된다. 하트(하트, 2015)는 실증연구를 통해 서구사회의 신념체계, 행동양식, 정치적 가치의 변화를, 반스와 카스(Barnes. Kaase; 어수영·한배호, 1996:84)는 기존의 시위문화에서 발견되는 항의 등의 습관적 시위와는 다른 태도 가치 변화를 정치변화로 설명한다. 이 같은 연구의 배경에는 물질사회에서 탈 물질 사회로, 과학 혁명-기술-통신 발달-, 정치적 변화-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구소련과 동구권 몰락으로 이어지는 냉전체제 종식-의 세계사적으로 중대한 진전의 경험 이 내재되어 있다. 붕괴와 해체 후의 세계사회는 자유선거의 민주주의 제도 구축이 가속화 되었고 자유주의 사상이 폭넓게 자리 하였다.

2017년 대한민국은 또 다시 정치사적 이변을 경험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 파면선고를 내렸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불과 13년 전 2004년 당시 노무현대통령 집권 시에도 있었지만 전자와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명시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나 이면에는 역동적인 국민들의 집단행동이 한국사회 정치사를 결정했다. 국민들의 집단행동은

1) 이는 다수의 연구 자료에서 확인되는데 어수영과 한배호(1996: 88)는 '한국정치문화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실증조사'를 통해 권위주의와 연결되는 묵종성향이 1985년 보다 1995년에 희석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990년 이전의 다수의 정치문화 성향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정향으로 규정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조영호·김용철(2017: 16)의 한국 민주주의 불안정의 문화적 기반에서 2015년 실증 조사한 설문을 통해 응답자 85%가 권위주의체제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였다고 밝힌다.

그간의 민주화 운동으로 반추할 때 한국 민주주의 이행과 발전의 초석이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정치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주체들은 격동적이다.²⁾ 그 가운데 정치참여 양태는 계속해서 진화하였다.

민주주의는 정치와 관련이 깊다. 주로 정치와 민주주의 연구는 구조-제도-와 운동-행위자적-의 관점이었다. 특히 운동론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사회학적으로 조명하는가 하면 정치학에서는 정치과정으로 연구한다. 본 글은, 정치 문화는 행위의 축적으로 구조화됨을 전제로 현재 부각되는 집단 행위에 대한 탐구를 시도한다. 우선 제도적, 운동사적, 정치문화적 관점에 따른 민주화 운동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본다.

첫째, 제도적 관점에서 1987년 이전은 독재 군부정권에 대항한 투쟁의 시기이며 이후는 대통령직선제가 제도화되는 민주주의 이행기이다.³⁾ 이후 단임의 대통령제가 정착되었지만 모든 정책과 권력이 여전히

2)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은 열정적이다. 한국의 정치참여는 열정을 제외 할 수 없다. 필자는 한국 민주화 주체 세력들의 민주화 운동을 공공성에 입각한 열정적 행위로 간주하며 집합행동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집합행동론의 역사적 배경으로 고전은 ‘르봉’-Gustave Le Bon, (1841년~1931년) 프랑스의 사회학자. 사회심리학자 ‘군중심리’로 알려짐. 집단행동이론의 시조.-과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 신경학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이론에 대한 적합성 여부의 논란은 있지만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가 받고 있다. 그리고 스멜서의 이론 역시 적합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그의 “6단계 이론”을 통해 집합행동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불만에 의한 집단행동은 오늘날 구조적 조건에 상황적 의미가 부가되어 현재를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으로 나타나는 점에 주목한다. (김영정, 1988) 불만에서 감정으로 연구가 확대되면서 감정으로 대표되는 열정은 콜린스(2012:48~51)에 의해 잘 설명된다. 집합적 흥분, 도덕적 밀도로 부른 뒤트캠의 정의와 자신이 부른 고도의례 밀도의 산물에서 발견되며 열정을 이루는 요소로 첫째, 함께 있음을 인식하는 것, 두 번째, 참여자들이 이전에 해온 참여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공동행위 유발의 요인이 있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관심의 초점이 서로의 관심이 되며 일체감의 집단의식 즉 집합의식을 창출한다. 열정적인 정치참여에는 이전의 경험과 유발요인이 있으며 관심의 초점이 서로 관심이 된다. 이 이론들은 불만과 체제 저항에 기인한 민주화 뿐 아니라 자기 동력의 현대 정치참여에도 적용되는 바이며 본 글의 대상자들 즉 대통령 지지자들에게서 참여정부의 불운이라는 경험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공동의 유발요인이 있었으며 이는 관심으로 작동한다.

대통령에 집중되는 구조로 또 다른 면의 시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즉, 민주화의 성격은 기존의 독재주의에 맞서 통치제도의 변화를 위한 민주화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세력의 집단적 저항 행위로 바뀌었다. 이를 조희연(2001)은 군부 권위적 정부 하에서는 투쟁과 자기 결정권 획득을 위한 민주화였고 이후의 동력은 자기 결정권을 억압하는 불평등, 차별에 대한 저항으로 설명한다. 한편으로는 다양해진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요구는 대의민주주의 상징인 정당들이 제도권으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하며 시민들의 비제도적인 방식의 정치참여 환경이 조성되었다.

두 번째, 행위자적 관점에서 한국사회 민주화 운동을 회간하면, 민주화 운동은 1987이전에는 대학생, 재야인사가 중심행위자로, 노동자 세력이 합하여 전개되었다. 1987이후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맥을 같이한 다수의 시민단체가 탄생했고 시민단체는 시민과 집회의 매개체였다. 2002 미선·효순 사건을 시작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촛불집회, 2004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2008년 광우병 집회 등의 집회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컸다. 이후 2016년 대통령 탄핵집회는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부각된다. 자발적 참여는 정보통신 기술 발달 특히 모바일 휴대용 전화기의 보급률이 확대되고 보편화되면서 개개인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용이해졌으며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조건 구축으로 더욱 촉진되었다. 참여로 효능감을 체득한 시민들은 탄핵정국 이후 한국사회 핵심 의사 결정자로 그리고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로 등극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글이 주목하는 정치문화적 변화 관점이다. 정치문화의 변화는 권력 분포의 변화로도 설명되는데 현대의 권력분포 구도에는

3) 정해구(2001: 93)에 의하면 1945년에서 1960년을 분단국가의 등장기인 국가형성의 시기, 1960년부터 1980년 후반 산업화시기, 1980년 후반의 민주주의 이행기로 규정한다.

시민의 다양한 정치참여가 포함된다. 헬드(2015)는 현대 민주주의를 이익집단과 파벌 등 정치구조의 다양성에 의해 지배가 가능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이자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사회구성원의 투표라는 민주주의 대표적 제도로 가치 기준과 그 범위내의 동의에 의해 작동하며 또한 다원적 권력은 위계적이지 않으면서 나열된 경쟁이라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영역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정치문화로도 이해되는 부분이다. 2017년 대통령 탄핵에서 나타난 한국사회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행위와 동기 등에서 다각도로 변화했다. 정치권력의 분화는 정치적 효능감과 직결되어 있다. 소위 정치권이 시민 눈치 보기로 여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권력 분포 변화를 의미한다. 이들의 활동은 투표라는 제도권내의 유권자로서의 참여뿐 아니라 투표 장려는 물론 운동적 성격의 집회에서 비폭력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문화 행사 양상을 띤다. 또한 정치문화의 한 패턴인 캠페인, 서명, 특히 인터넷 행동주의 등의 다양한 참여를 한다.

여기에는 조기대선과 더불어 당선된 새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도 포함되며 이들은 주권자로서 이전의 정치인 지지자들과 비교할 때 더욱 진화 된 모습으로 사회 전면에 등장했다.⁴⁾ 이들의 집단행동은 무수한 청와대 청원, 댓글 작업, 문자 폭탄, 정치인 후원금 몰아주기, 정치관련 소식과 함께 페이스북, 트위터, 팟케스트,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더욱 높아진 지적 수준으로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도 체크하며

4) 국민일보 기사 2018. 03. 19. [문팬 또는 문빠 탐구], '문빠=키워드 워리어?.. 그것은 편견이었다.'

_____. 03. 19. [문팬 또는 문빠 탐구], '조직 없이 움직이는 6만~10만 명 '자발적 정치 팬덤'

_____. 03. 20. [문팬 또는 문빠 탐구], '팟케스트로 논리 무장. 트윗 날리며 여론전'

_____. 03. 22. [문팬 또는 문빠 탐구],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것..' 열정 넘어 반지성주의'

_____. 03. 22. [문팬 또는 문빠 탐구], '방해되면 피아 구분 없이 공격'

정책을 분석하는 등의 역량을 발휘한다.

본 글은 우리사회 정치문화의 변화를 감지하며 정치문화의 주체인 행위자에 초점을 두며 정치참여자의 범위를 일명 문파로 불리는 대통령 지지자에 한정한다.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활동을 정치문화의 단면으로 보고 정치문화적 접근을 통해 이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제도권 내 혹은 상부구조에 위치하지 않고 하부 구조의 시민으로 행동력과 결집력을 통해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기반이 되고 있다. 이들은 마치 연예인 팬클럽과 유사하면서도 정치활동과 이반되지 않는다. 사회적 성격의 운동으로 선플 운동을 펼친다거나 일명 굿즈라는 기념품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사회적 약자 혹은 재난 지역에 후원하며 더불어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를 적극 옹호하며 홍보한다.⁵⁾ 이들의 행보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으며 정치권에 대한 응원, 촉구 혹은 비판도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을 두고 신드롬, 팬덤 현상 등 부정적이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고 포플리즘⁶⁾으로 우려하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극성스럽다.’ ‘지나친 인물위주의 지지와 정치참여이다.’ ‘파시즘이 연상된다.’-있다. 특히 정당민주주의가 공고하지 않는 불안한 한국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직접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법치내에서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순기능 역기능의 기능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발전과 민주주의의 본질에서 핵심이다. 특히 이 논란은 본 조사의 결과로 나타난 지지자 대부분이 당원이라는 점과 정당 내에서 정치 효능감을 찾고자 하는 의지와 극한의

5) 국민일보(2019) 2월 7일 “문대통령 팬카페 지난해 이어…치매노인 지원 사업에 사용”

6) 포플리즘은 이미 고대 아테네에서 지목된 민주주의의 부정적 면-도편제가 그 예이며 다수의 원칙과 시민의 정제되지 못한 몰아주기 의사결정-이며 중우정치로 개념화되어 내려오고 있다. 포플리즘의 근간에는 ‘배제’와 ‘적’ 개념이 있다. 타자를 적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고립시킨다. 상위의 도편제나 파시즘과 전체주의에서 대중 선동이 그것이다.

보수 진보를 거부하는 중도성향을 보이는 점은 기존의 좌, 우 혹은 진보 보수의 이분법적 이념논리와는 다른 성향으로 향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특징이다.

대통령지지자들의 정치참여 출발은 2015년 민주당 온라인 당원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권위주의 정부 시 학계에서는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 무관심으로 정치참여의 위기를 염려하였다. 그러나 2015년을 기점으로 한 정당의 온라인 당원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정치 참여의 활기가 감지되었고 연구대상자들 역시 이때 입당한 지지자들로 지금도 당원 자격을 유지하며 활발한 정치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다양한 행보는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⁷⁾ 본 글은 이들을 주목하며 정치참여의 추동력은 무엇이고-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원인과 이유- 한국사회 정치문화에 어떤 과제를 주는가? 라는 질문으로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지향 관점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정치나 정치적 상징물에 대한 지식 형성과 참여의 당위성 파악이다. 이는 행위의 동기와 지지이유를 통해 살펴본다. 두 번째는 이들의 활동이 보여주는 특징과 정치문화적-시민문화-과의 연관성이다. 세 번째는 정치성향 분석이다. 한국사회가 급속한 근대화와 반공이데올로기의 구조에서 탈 물질, 반공의식 약화의 변화 시기를 맞아 등장한 이들의 이념 이탈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정치문화적 패턴 탐구와 함께 네 번째로 민주주의와의 연관성 파악이다. 즉 정책을 통해 대통령 지지자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이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이해와 행위로 만들어진다. 이들의 민주주의 관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자료를 통해 연구대상자들의 특징을 설정하고 릴레이 소개로 만나 면접을 통해 확인하였다.

7) 각주 4 참조.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은 정치문화와 정치참여에 대한 알먼드와 버바의 정치문화론적 개념을 살펴본다. III장은 면접 조사 한 자료 정리이다. IV장에서는 대상 자들과의 대화를 토대로 특징을 파악한다. V장은 결론으로, 이들의 정치참여와 정치발전과의 관계선상에서 전망과 우려로 구성한다.

본 연구에는 다음의 한계점이 있다.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의 희소성이다. 두 번째, 특히 본 글의 연구 대상자는 현 대통령의 지지자며 이들의 행보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 평가에 대한 예민함이다. 세 번째, 인터뷰와 면접 대상자들과의 접촉의 어려움이다. 이는 조직적 실체가 있지 않아 접근이 어려우며 경제 활동을 하는 일반 시민으로 인터뷰 시간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더 많은 인터뷰이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다. 다만, 본 글은 시의성과 행위자 측면에서 특정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참여의 특성 연구를 통해 이후 한국사회 정치문화의 흐름에 관한 연구로 이어지는 선행적 시도로 그 의미를 갖는다.

II.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

그동안 정치문화 부분은 다양한 연구 활동이 있었으며 국내 다수 문헌에서는 알먼드와 버바의 정치문화론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 김성수와 한배호의 비교정치에서, 학술지로는 박찬욱, 어수영 그리고 김영태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박찬욱(2004)은 노무현정부의 시민의 정치참여 특징과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1996년 어수영과 한배호는 한국정치문화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로 한국정치문화를 구성하는 요인 분석, 권위주의 문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박찬욱(2004)은 그의 글에서 김종립을 시작으로 박동서, 김광웅, 신도철이

1980년대 일반인의 정치참여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시민에 의한 정치참여에 대해 박찬욱, 어수영, 광진영의 연구를 소개한다. 그 외 민주주의와 정치문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한 1986의 신명순도 있다. 그러나 통시성에 입각하여 즉 정치참여 유형이 더욱 문화적으로 바뀐 것에 비해 이전과 비교하며 최근의 현상에 이르기까지 큰 범위의 연구는 다소 약한데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외에서는 잉글하트와 로버트 달, 러셀 달튼 그리고 테리 클라크의 등에서 탈 물질과 시민참여 중요성의 담론에서 정치참여의 이론들이 확인된다.

정치문화라는 개념 정의에 앞서 크뢰버와 클럭혼(필립스미스, 2013)의 문화론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생활을 포괄하는 하나의 기술적 정의. 둘째, 세대를 가로질러 전달된 유산의 역사적 정의. 셋째, 구체적인 행동거지와 행위의 패턴을 틀 짓는 규칙 혹은 생활의 양식, 행동거지에 대해 기준을 두지 않고 가치의 역할을 강조하는 규범적 정의. 넷째, 소통. 배움과 물질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제 해결장치의 심리학적 정의, 나열하기만 하고 관념과 행동거지를 구분하지 않는 정의들과 대조되는 구조적 정의, 다섯째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가의 발생론적 정의로 설명한다. 문화의 개념 범위에는 제도나 운동적 관점, 권력, 정치 엘리트가 키워드로 광범위하다.

일반 문화와는 연관성이 있으나 정치체계와는 구분하는 정치문화 이론은 2차 대전 이후 알먼드에 의해 도입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어수영(2008:18)은 베버의 문화론에 이어 정치문화는 개인 혹은 집단이 습득하거나 학습으로 나타난 결과로 정의한다. 또한 잉글하트와 월젤(2015:458)의 정치문화는 자기표현의 가치를 구성하는 사회태도의 정치문화가 민주주의 자체의 외적 지지보다 민주주의를 이끈 정도의 지표로 설명한다. 주로 정치문화는 개별 국가 비교에 활용되었으며 ‘정치정’⁸⁾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정치적 상징물에 대한 태도, 행동과 연관하

여 해석하기도 한다.

알몬드와 버바(Almond and verba, 1963; 한배호, 2000: 123)의 정치 경향은 인지, 정의,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는 대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관점이며 정의는 대상에 대한 감정, 평가는 대상에 대한 평가와 사적인 이해와 공익의 구분이다. 이 요소들이 균형적일 때 참여형 정치와 시민문화 모델의 중심이 된다. 우선 “참여형”⁹⁾은 정치적 효능감이 바탕이 되는데 정치적 영향력과 이행력에 긍정과 애착을 갖는다. 또한 정치 참여의 횟수와 참여의 중요성이 능동적인 시민을 만든다. 이를 바탕으로 본 글의 대상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영향력은 온, 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이 그 예이다. 참여형은 시스템 이해도가 높고 자신의 역할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투입”¹⁰⁾과 “산출”¹¹⁾과 연결된다. 다음으로 시민문화의 특징으로는 체제에 대한 애착이다. 이는 충성심의 안정을 위함인데 대통령 지지이유 중 하나로 인터뷰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세 번째로는 합의와 균열 간의 균형이다. 이는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동질감 조성을 의미한다.(한배호, 20000) 시민문화가 수행하는 역할 내의 균형은 첫째, 유

8) 개인이나 집단의 일정한 행동 패턴이나 경향을 의미한다.

9) 알몬드와 버바(Almond and Verba, 1963: 17-20; 김성수, 2015:174-176)는 정치문화 유형은 지방형(parochial political culture)-향리형이라고도 번역되며 전근대적이며 전통적 사회의 정치문화이다. 국가의 정치제도, 정치지도자 역할, 정책형성 과정 등에 관심이 없고 기대가 없다.- 신민형(subject political culture)- 과도기적 신민사회의 형태. 정부에 복종함으로 정책결정과정에는 미온적 참여를 한다.- 참여형(participant political culture)- 시민정치, 민주적 사회의 형태. 정치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적극 참여한다. - 3가지 유형이다.

10) 알몬드 버바의 개념으로 어수영(2008: 7)은 투입을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하여 정당, 이익집단, 의회, 선거의 표현으로 정의한다. 지지자들의 정치참여가 곧 투입이다.

11) 마찬가지로 알몬드 버바의 개념인 산출은 어수영(2008: 7)에 의해 시민들의 요구가 정책 반영이라는 결과로 소개된다. 실제로 이들은 정책 및 정치영역의 반영을 위해 활동한다.

권자로서 정치 엘리트가 시민의 뜻을 반영 하도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정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반영하게 한다. 세 번째는 지나친 참여나 냉소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역기능에 대해 균형을 이룬다.(김성수, 2015)

알몬드와 버바의 3가지 유형은 국가별 비교 이론으로 모호함과 단순함이 지적된다. 다양한 변수가 발생 가능하며 자유체제, 안정된 서구사회에 적합하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지방형과 신민형을 거쳐 참여형, “시민문화단계”¹²⁾이다. 물론 알몬드가 밝힌 시민문화는 3가지 유형이 혼재된 상태이나 이 복합적인 유형의 시민문화에 특히 주목 하는 것은 대상자들의 특징-충성과 적극적인 참여의 혼재-과 유사함이다. 현대의 참여, 속의민주주의 아래에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이며 다양한 참여행위가 매우 중요하다. 정치권력이 정치인에게 독점되어 단지 경기장의 공처럼 이 진영 저 진영으로 옮겨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시민들의 능동적인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아렌트(Arendt, 1963: 256; 헬드 2015:527))는 민주적 자치는 시민 스스로 시민으로 확립할 기회 창출과 상황을 교정하는 시도로 말한다. 달톤(1996; 달톤, 2000:116)은 버바, 슬로츠먼, 브래디의 시민자발주의 모델을 인용하여 참여 이유를 사회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참여에 사용되는 ‘개인의 자원’, ‘고무시키는 정치적 태도’, ‘권유하는 집단’이나 ‘사람들과의 연고’를 제시한다. 참여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최근의 다원주의 사회와 맥락을 같이하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에서는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2) 서론에서 언급된 국가형성기, 산업화시기, 민주주의 이행기와 한국사회 변화 참조. 알몬드와 버바의 시민문화는 시민들의 높은 정치적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이 참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III. 연구방법

본 글은 릴레이 소개와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새롭게 등장한 정치 행위자 중 1차적으로 친문지지자를 큰 범위에서 대상으로 한다. 다음으로 세부적 구조 설정에 있어 대통령지지 유명 밴드와 카페의 운영자 혹은 다수의 글을 올리는 회원, 수만의 팔로우를 확보한 트위터 계정주 등과 같이 영향력이 있고 개인의 주장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 대상은 제외하였다. 이들은 지지자들의 ‘일반 사회적 특징’¹³⁾ 파악의 근거가 되었으나 실제 인터뷰에서는 분산되어 있으며 가능하면 주목받지 않는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주목받는 지지자들과 인식이 유사한지를 확인하고 일반적 지지자들의 특징을 뒷받침 하고자 하였다.

처음 섭외된 각각의 3명으로부터 시작하여 교류 혹은 친분이 있는 다른 대상자를 릴레이 소개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1인당 1시간 이상의 인터뷰 시간이 소요되었고 연결된 지방 거주자 2명은 전화인터뷰로 진행했다. 질문 문항 수는 인구학적 특성 포함 20문항이다. 연구주제와 조사 조건에 의해 연구자의 의도가 반영되었다.¹⁴⁾ 면접대상자는 총 13명이다.¹⁵⁾ 지지자 인터뷰가 쉽지는 않았다. 흩어져 있다가 이슈와 필요에 따라 온라인에서 뭉치는 특성에 따라 접근이 어려웠다. 여기에는 앞서

13) 각주 4참고

14) 다소 노출이 덜 되었고 일과 정치참여를 병행하는 평범한 시민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행스럽게도 면접한 모두가 의도와 일치했다. 다만 40대 소개가 이어져 40대 소개는 제한했다.

15) 13명으로 모집단의 정향을 대표한다는 것은 빈약하다. 확증의 오류 우려와 함께 이들을 연구한 문헌자료도 전무하여 본 글의 정치문화 이론 대입에도 다소 무리라는 지적은 감수해야한다. 이와 같은 제한적 특성은 정치참여의 새로운 지형이라는 연구에 앞서 탐색하는 수준으로 대변한다. 또한 개별 인터뷰였지만 이들의 가치관은 개성이 아닌 경향성으로 전제하고 시도하였다. 경향성이라 함은 대통령지지자들의 상호간 형성된 공감대를 의미한다.

밝힌 바와 같이 유명밴드나 트위터를 배제한 점도 기인한다. 조사에서도 확인된바 정기적인 모임이나 오프라인 만남이 규칙적이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일정 부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것은 당에서 혹은 사안별로 집회, 교육프로그램 등의 회합하는 기회와 온라인에서의 교류가 전화번호 교환으로 이어지고 개인별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오프라인 소모임으로 이어졌다. 이 역시 만나기 좋은 거리에 위치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2016년과 2017년 탄핵집회에서의 정치참여 특징은 “자발적,”¹⁶⁾ “비폭력,”¹⁷⁾ “SNS,”¹⁸⁾ “팬덤,”¹⁹⁾ “실체 없는 결사체,”²⁰⁾ 등으로 상징 된다.

16) 이지호 외 2인(2017)의 글에 따르면 2016 탄핵정국에서 조사한 시민의 자발적 집회 참여 근거를 다음 3가지로 정리 한다. 첫 번째, 조이코퍼레이션의 스마트폰 와이파이 신호 분석이다. 2016년 11월 19일 4차 집회시 53%가 1시간 이내 집회 장소에서 머물렀고 참가자들의 평균 체류시간은 80분이며 2시간 이내 참가자들은 전체의 74%로 나타났다. 시간대로 2시부터 9시 사이 참가인원은 74만명으로 추정하는데 이 근거로 노조 및 사회단체가 동원 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닌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제시한다. 두 번째,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의 1차 집회(10월 29일) 공지사항이다. “급작스럽게 잡히다보니 시간 장소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글이다. 급작스러움의 함의는 5만여명 동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는 탄핵집회를 사전에 준비하거나 이 집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 2015년 11월 14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민중 총궐기를 준비하기 위해 결성하여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 11월 12일 6차 집회 준비 상태였다는 점이다. (11월 5일 2차 집회부터 11월 3일 구성된 박근혜정권 퇴진비상 국민행동(퇴진행동)이 집회를 점검하고 참여를 조직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인데 이를 통해 촛불집회 참여 계기 중 뉴스를 접하고 스스로 판단이 80%로 압도적이며 친구의 권유가 9% 등으로 조사되었다. 참여 동행자는 친구나 직장 동료로 50%, 가족이 32%이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조사를 근거로 설명해준다. 이 조사 내용은 자발성에 대한 근거 제시이며 한국사회 정치변화의 특성으로 연구대상자 역시 동일 범주화 한다. 실제로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였다.

17) 2000년 이후 2002년 효순. 미순 촛불집회부터 2003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미국산 수입쇠고기 반대 집회 등은 대규모 시위 집회이며 비폭력적 집회이다.

18) 인터넷 발달은 집회문화 변화와 매우 밀접하다. 이 부분은 사례분석에서도 다룬다.

19) 일간에서는 열성지지자들을 팬덤 현상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박구용(2018)은 문파를 정치 팬덤으로, 문파를 시민 주권을 활성화 하는 정치현상으로 구분한다. 필자는

그리고 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등-과 지지자들의 구심적-인물, SNS-과정 수단-정향, 정당, 정책-을 매개하여 본 글에서도 이를 정치참여로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IV. 사례구성

1. 인터뷰이 사회학적 특성

인터뷰 대상자의 성별은 남 7명, 여 6명이며,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까지이다. 릴레이 인터뷰에서 40-50대 연결은 매우 자연스러워 편중 우려가 제기 되면서 조사자 개입으로 60대 소개를 요청 시도²¹⁾하였으나 연결되지 못했다. 직업별로 주부가 약간의 우위이며 경영인과 자영업, 사회복지사, 서비스업, 대학생이다. 개인 특성에 의해 대학진학을 하지 않는 20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 학력자이다. 계층에 대해서는 소유주택이 없다. 비 독립과 개인 소유 자산이 없다. 라는 이유로 하층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주택소유 및 수입 등으로 상층 혹은 중상층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중간(중산)층으로 답했다. 귀속의식 즉, 자신이 생각할 때와 통계청 일반적 기준에 의한 분리된 질문의 답에서 전자는 중상층 후자는 상층이라고 답한 경우도 있다. 중간(산)층 기준은 모호했다. 전반적 규정 짓기의 모호함은 강남권 전세자, 소유한 차량-학생을 제외-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먹고 살만하다.'라는 다소 특색 있는 답을 했다.

릴레이 소개는 부산, 대구, 전주로도 확장되었다. 서울권은 강북, 강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20) 개인의 자발성과 관련되며 유형의 조직이 없음을 의미한다.

21) 어렵게 연결된 60대는 바쁜 일정으로 시도로 종료되었다.

남 등의 소재지이나 이 부분은 본 글이 주목하는 내용과 개연성이 크지 않아 별개 분석은 하지 않았다. 다음은 인터뷰이들의 인터뷰 내용 정리이다.

〈표 1〉 인터뷰이 인구학적 특성 정리

연령(대)				성별		직업							학력		계층		
20	30	40	50	남	여	자영	경영	주부	서비스	일반직	학생	고졸	대재	대졸	상	중	하
2	3	5	3	7	6	2	2	4	2	2	1	1	3	9	1	9	3

2. 인지. 정의. 평가 정향

질문 :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 동기(정치활동 동기), 이유, 정치활동 경험에 관하여.

“참여민주주의, 헌법주의, 원칙주의, 제조산하, 적폐청산에 관심이 있고 지지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문대표 시절 어려운 시기로 도와야 겠다 생각했다.”(40대 남)/ “노대통령 서거 시 행보를 보고 알게 되었다. 원칙주의자이며 감정절제 진정성에서 정치지도자 가능성을 보았다.”(40대 남)/ “최순실 사건과 이어지는 대선을 통해 알게 되었고 조기 대선 후 적극 지지하게 되었다. 문대표 시절 엄청난 비난 집중적 포화를 통해 자연인으로 인간 문재인을 알게 되었다.”(40대 여)/ “이야기 주인공 같다. 팬심이 있다. 마인드가 좋다. 사람중심이 좋았다. 대선 경선 직전 언론에서 공격을 하여 반작용으로 조사하게 되었고 조사 후 지지자가 되었다.”(40대 여)/ “정치에 약간의 관심은 있었으나 인물에 홀릭되었다. 학생운동 경험은 있으나 노대통령 사후 계기로 적극지지 및 활동한다.(50대 남)"/ “아버지 같은 외모이다 포용, 성격,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노대통령 못 지킨 미안함 마음. 문대통령 지킴이가 되겠다.”(40

대 여)/ “노대통령 서거시 자원봉사 했다. 힘 실어 주기위해 지지한다. 당시 정책에는 관심 없었고 대통령 후보시 막연히 호감이 갔다. 입당도 그때 했다. 나는 ‘아문다’고 ‘대깨문’이다.”(20대 여)/ “대선 후보 확정 후 지지하게 되었다.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신뢰가 있다. 세월호 사건과 연계되어 지지하게 되었다. 국민을 생각하는 진심이 느껴진다.”(30대 여)/ “노대통령 서거 시 노출되면서 관심과 지지가 시작되었고 세월호 사건과 최순실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지지했다. 인권과 약자를 보호 할 것 같고 시국관련 사건 등 그동안 행적을 보고 지지한다. 진정성이 느껴진다. 아주 잘하고 계신다. 원칙과 상식의 소유자로 나도 따르고 있다.”(50대 남)/ “노무현대통령 지지했고 민주당내 후보여서 지지하였다. 도덕적이고 존경심이 있다. 믿음이 간다. 정권교체 열망도 있었다.”(50대 여)/ “2012년 대선 실패 시, 노대통령 서거 시 모습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였다.”(20대 남)/ “지지이유는 정책이다. 다른 정치인들은 말로만 한다. 치매노인 국가책임제, 노동정책, 취업일자리 정책 등 관련자라서 잘 안다. 잘 하시는거다.”(30대 남)

3. 이념적 성향

질문 : 개인의 이념성향 반공이데올로기에 관하여.

“진보성향이다. 이유는 법과 제도 인간고유의 존엄을 지키고자 한다. 반공이데올로기는 없어지지 않는다. 반공이데올로기는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40대 남)/ “진보다. 지금은 존재하나 수위는 낮아진다.”(40대 남)/ “나는 보수다. 보수는 지키는게 보수이다. 고유가치를 지키고 인간존엄을 지키며 법과 제도를 지키려고 한다.”(40대 여)/ “중도보수이다. 가령 지나친 학생인권은 교사권위 실추 등의 문제를 발생한다. 환경 조성되지 않는 교육청

의 진보 교육정책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도 중도보수라고 생각한다.”(40대 여)/ “진보이나 새로운 진보를 꿈꾼다. 북미정상회담시대이며 적극적인 통일교육 시행 등이 되면 별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50대 남)/ “20대에게는 잘 안먹힌다. 남자20대 군필자는 북한 퍼주기로 반감을 갖고 있는 듯하다. 주변인들이 그렇다. 반공시대의 나이드신 분들을 시대적 차원에서는 이해하나 공감은 안된다.”(20대 여)/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다. 나는 보수이다. 주변인들이 특히 종교인들 중 공산사회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반공이데올로기 영향 안 받는다.”(30대 여)/ “중도이다. 나는 현실 지향적이다. 이상적인 것이 진보다. 나는 급진적이 아니다. 어린 시절 반공교육을 받았으나 성장 후 지금은 기득권의 공고한 정치적 수단이며 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안민는다. 저항은 있을 수 있으나 바뀔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50대 남)/ “진보이다. 반공이데올로기는 극복할 사항이다. 통일은 안 바라지만 후대의 평화를 위해 극복해야 한다. 반공이데올로기 현실이 슬프다.”(50 여)/ “진보이다. 남북 화해를 통해 사상의 자유가 필요하다. 한국정치의 담론은 보수이나 낙관적이다. 반공이데올로기는 교정될 것이다.”(20대 남)/ “보수 진보 무의미하며 당연한 것 가령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보수 진보는 의미 없다. 이념 보수 진보를 넘어서야 한다.”(30대 남)

4. 정당과 조직

질문 : 정당 가입 여부와 입당시기, 조직의 필요성에 관하여

“김대중대통령 당시 가입했다. 활동은 거의 없었다. 문대표 시절 온라인 정당 가입 시기에 활동하기 시작했다. 권리당원 대의원이다. 정당 내에서 발언 정당 활동 과정이 민주주의적 절차다. 온라인 활동은 한계

가 있다. 정당 활동이 필요하다. SNS는 취약함으로 오프라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정당에서 해야 한다. 오프에서 따로 활동하는 건 없다.”(40대 남)/ “민주당 온라인 당원이다. 2015년 온라인 입당했다. 정당 활동 없었다. 권리당원이다.”(40대 남) / “17년 지역위 활동을 하면서 정 당에 가입했다. 지지자 서로 모르나 밴드 카페 일부 가입자는 안다. 실 체조직은 필요 없다. 지역위에서 활동한다.”(40대 여)/ “대선 경선 때 입 당했다. 집단이 아닌 당에서 활동하겠다.”(40대 여)/ “지역적으로 대 구 는 당시여당 강세지역이다. 당 활동은 소극적이었다. 시민활동, 노동활 동 전력이 있다. 지금은 권리당원이다. 결사체보다 지금 상황이 더 좋 다. 조직은 돈이 개입되고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보이는 조직은 맞지 않 다.”(50대 남)/ “당대표시 정당 가입했다. 지역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다. 권리당원이며 지역대의원이다.”(50대 남)/ “지역위에서 매 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당대표시절 입당했다. 보이는 조직은 맞지 않다. 지지자 다수 안다. 집회나 당 활동, 오프모임을 통해 안다.”(40대 여)/ “지역위 활동을 하고 있다. 권리당원이며 대의원이다. 당대표시 입 당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활동을 한다. 카페 등에서 지지자모임을 인터 넷 검색으로 알게 되었고 그 모임에서 지역위로 찾아와 교류하고 있다. 교류는 필요하나 조직은 싫다 특히 젊은 층은 소속 되는거 좋아하지 않 는다.”(20대 여)/ “당대표시 입당했다. 지역위에서 활동한다. 실제적 조 직은 필요 없지만 실제 없는 활동은 정치변화에 도움이 안된다. 지역위 의 당에서 활동해야 한다.”(30대 여)/ “정당가입은 2년 정도 되었다. 지 역위 활동을 할 예정이다. 후원금 자체는 괜찮지만 조직은 사용자가 잘 못 사용하여 문제가 된다. 실제 조직은 필요 없다. 카페나 밴드들은 정 치적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연대가 안 되어 있다. 온라인 수준에서 연대가 필요하다.”(50대 남)/ “2012년 대선 시 입당했다. 권리당원이나 개인사정으로 지역위 활동은 안하고 있다. 권리당원이다. 문대표 시절

온라인 당원 가입했다. 정당은 존중해야 한다. 조직은 회계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선봉장에 서는 사람이 생긴다. 그럼 조직은 따라야 한다.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은 필요 없다.”(50대 여)/ “문대표 시절 온라인 정당 가입했다. 정당가입은 지지를 위한 최소한의 표현이다. 권위적 억압적 조직은 신물난다. 독립된 개인의 유연한 연대가 좋다.”(20대 남)/ “조직이 들어서면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다. 소모임에서도 제대로 활성화는 되지 않고 다툼이 발생한다. 단순지지가 아닌 바라는 것이 있어 오는 사람도 있더라. 조직은 분열의 요인이 된다. 실제 조직은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면 소모임 정도?”(30대 남) / “정당내지지 인물이 없다. 신생 정당에 가입 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무당이다.”(30대 남)

5. 활동 유형

질문 : 활동과 지지자 입증에 관하여

“카페 가입되어 있다. 정당아카데미를 통해 약간의 교류 한다. 트위터 활동을 통해 정책 홍보 및 정보 교류한다. 시민기자로 활동한다.”(40대 남)/ “대통령 관련밴드에 가입되어 있다. 정치인 등 다양한 경로로 팩트 체크한다. 트위터 등은 정보 습득과 여론 형성 파악을 위해 활용한다. 그러나 나에게 크게 영향력은 못미친다.”(40대 남)/ “기관 사이트나 언론 및 SNS에서 정보를 받는다. 그러나 참고할 뿐이며 불신부분도 있어 팩트 체크를 다시 한다.”(40대 여)/ “대통령지지 커뮤니티에서 일명 눈팅족이다. 필요 정보는 취득한다.”(40대 여)/ “카페, 밴드에 가입되어 있다. 정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 사진도 공유한다. 굿즈 구입한다. 댓글작업도 열심히 한다. 사실 체크를 하고 반영한다. 필요시 집회도 참석한다. 밴드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필요에 따라 집회도 참석한다.”(50대

남)/ “대통령 관련 제품 구입한다. 카페 밴드에 다 가입되어 있다. 집회도 참석한다. 정책 홍보한다. 중도성향의 시민들의 정책과 대통령에 대한 오해 방지를 위해 트위터 댓글 등을 통해 활동한다. 가짜뉴스와 언론의 무조건적 비판에 대해 대응 차원이다. 지역민 의견 수렴하여 건의 성격의 글도 당 홈페이지 등에 올리기도 한다. SNS를 통해 교류한다.”(40대 여)/ “메인뉴스와 연관 것은 핸드폰을 많이 이용한다. 온라인 활동은 많이는 하지는 않는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계정은 있고 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정부정책 홍보 혹은 대상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알려준다.”(20대 여)/ “가입된 카페에서 정보를 얻고 정독한다. 악플에 댓글을 단다.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에 한다. 댓글 때문에 정책 공부를 많이 한다.”(30대 여)/ “정책 공부를 많이 한다. SNS는 전파성 좋은 장점이 있어 활용한다. 카페 밴드에 가입되어 있다. 정보 경로용으로 SNS 이용한다. 카페에 올라온 정보를 보고 다른 곳에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정정 글을 올린다.”(50대 남)/ “카페, 밴드 가입되어 있다. 포털사이트, 트위터 확인하고 댓글달기로 왜곡 정보 수정한다. 좋아요 등 위기 시 전화교환을 한다. 통화로 결집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기사댓글 활동을 한다. 좋아요 싫어요 누른다. 카페에서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 재빠르게 사실여부 확인하여 올려주는 회원이 있다. 링크도 걸어준다. 이분들은 SNS활동을 많이 하는 분으로 다른 곳에도 올린다. 나도 SNS 통해 받고 내보낸다. 기사도 찾아보고 정부 사이트도 들어가서 정보와 사실 확인을 한다.”(50대 여)/ “SNS 글 작성하고 이를 위해 책도 읽는다. 정책도 공유하고 댓글도 단다.”(20대 남)/ “달력도 만들었다. 대선 시 자원봉사도 했다. 카페활동도 했다. 댓글 달고 자료를 통해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한다. 이미지 작업도 해서 올린다.”(30대 남)

6. 정책을 통한 민주주의 인식

질문 : 재벌과, 복지에 관한 정책, 민주주의란? 에 대한 질문. 부연설명 필요시 재벌 해체 최저임금 주52 근로시간, 성장위주 자유경쟁 혹은 공동체 우선 정책 등의 키워드 제시.

재벌정책 : “경제는 포용해야 하고 시장경제는 지켜져야 한다.”(40대 남)/ “재벌구조 해체는 맞으나 기업 자체를 없애는 건 옳지 않다.”(40대 남)/ “재벌 해체는 시대에 맞지 않다. 시장경제 자본주의시대이다. 재벌 개혁이 맞다. 예컨대 세금을 잘 내는 것이다.”(40대 여)/ “공평과세, 세 재 강화가 바람직하다.”(50대 남 A)/ “대기업 혁신이 필요하다. 가령 프렌차이즈 억제이다.”(40대 여)/ “재벌해체 해야 하는 것은 바람이나 정부 혹은 청와대가 강압적이면 안된다. 말로 하는 비판은 쉽다. 강압은 안된다.”(20대 여)/ “재벌해체 현실적 해체 불가능하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그렇다. 세금으로 해결하면 된다.”(30대 여)/ “재벌해체는 아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고쳐야한다. 해체나 혁명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정부가 강압적이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고소득자 세금 많이 받자. 재벌해체 불가능하다.”(50대 남)/ “재벌해체 불가능 하다. 이미 재벌이 공고화 된 건 현실이다. 우리나라 소득주도성은 재벌을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다. 이런 걸로 바꾸어 가야 한다.”(50대 여)/ “죽벌경영 반대, 경제민주화 정책이 재벌해체에 이룰 수 있다. 대표를 노동자가 선출하는 것과 오너 일가의 경영권 손 떼는거다. 이것은 기업해체가 아니다. 갑질 오너 해체해야 한다.”(20대 남)/ “원론적으로는 해체 필요하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해체는 아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야한다. 대기업이 누리는 혜택 폐지 오너의 독점수입 반대이다. 부자≠대기업 인식 필요하다.”(30대 남)

복지에 대해 : “소득주도경제와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정책은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이다.”(40대 여)/ “부모를 국가에서 살피주면 내 부담이 줄어든다. OECD평균까지 가는게 맞다.”(40대 여,)/ “최저임금이나 주 52 근로시간 정책은 경제팀의 실책이라고 본다. 필요는 하나 지금 우리나라 구조에 맞는 정책이어야 한다. 조정이 있어야 한다. 복지는 진영논리가 불필요하다. 국민적 요구이므로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50대 남)/ “더 확대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공약 지키기 하나이다. 임기 말까지 만원으로 인상해야한다. 경제성장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경제가 안 좋으면 힘들꺼다.”(40대 여)/ “최저임금 보장 못하는 업체들은 폐업하는 게 맞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지키는 곳 많지 않다. 체감해보니 별 의미 없더라. 다니던 카페가 최저임금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그만두었다.”(20대 여)/ “나는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복지 확대하는 것이 맞다. 최저 생계비 올려야 모두가 부유해진다.”(30대 여)/ “기본 소득 지켜져야 한다. 유럽의 사회주의 모델을 선호한다. 복지는 다른 선진국가보다 낮다. 어느 정도 맞춰져야 한다.”(50대 남, B)/ “이전 정부때도 연금 올랐다. 복지에 대한 공격은 공격의 구실일 뿐이다. 내 세금이 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복지 없는 나라는 미개국가다.”(50대 여)/ “복지정책은 잘하고 있다.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시장이 양보하고 국가의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20대 남)/ “최저임금 피해 본 사람들은 사실상 드물다. 다른 지원정책도 있다. 최저임금 피해로 운영 못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직원 급여로 꿈수부리는 것이 많다. 오너의 마인드 문제다.”(30대 남)

민주주의에 대해 : “국민 주권인 사회이다. 최대다수가 최대 행복해야한다. 헌법에 보장된 공화주의적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40대 남)/ “사회구조, 정치구조가 절차적으로 투명한 사회이다.”(40대 남)/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단 타인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자유이다.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이다.”(40대, 여)/ “자유보장은 옳으나 타인의 피해를 준다면

책임과 차별이 따른 자유이어야 한다. 공동체 정책이 옳다고 본다. 우리는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40대 여)/ “민주주의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사람이 우선되는 사회이어야 한다.”(40대 여) “민주화는 되어가고 있다. 완전한 민주주의는 없는 것 같다.”(20대 여)/ 개인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함께 결정하고 따르는 사회이다(30대 여) 자유방임은 아니다. 국가가 복지에는 개입해야 하고 복지 강화하는 민주주의 현대 국가의 소임이다.”(50대 남)/ “상생하는 민주주의, 힘없고 약한 국민 공정하고 더 좋은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민주주의이다.”(20대 남)/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본인의 의사표현이 가능해야하고 틀리지 않으면 인정받는 사회가 민주주의이다. 함께 가는 민주주의이다.”(30대 남)

SNS에 문제점: “SNS는 정치활동에 취약하다. 지속가능 담보하기 어렵다. 온라인은 오프로 나올 수밖에 없다.”(40대 남)/ “SNS는 크게 영향력이 없다고 본다.”(40대 남, B) / “정보는 참고로 보나 전적으로 신뢰는 안한다.”(40대 여, A)/ “일부 교류하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40대 여, B) 촛불집회시 참여 독려가 많았다. 그렇게 활용된다.”(50대 남) “활용은 하고 있으나 지역위 활동을 많이 한다.”(40대 여)/ “정보경로로 이용한다. SNS 친구 맺기하고 있다. SNS는 개인상황과 정치관련 계정 따로 있다. 온라인 활동은 주장이 강하고 가짜도 있어 왕성하게는 안한다.”(20대 여) “정보경로로 활용한다.”(30대 여)/ “신속하고 대량 살포의 장점은 있다. 그러나 익명성의 위험은 염려된다. 거짓 정보도 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가려지지 않을까 한다.”(40대 여 C)/ “SNS는 거짓 정보도 많고 분열을 초래한다. 감정적이다. 워딩이 정확히 전달이 안된다. 대통령의 정치인지지 등으로 분열도 있다. SNS 한계는 오프에서 토론회나 강연회가 있어야 한다.”(50대 남)

V. 분석 결과

1. 퇴장과 등장의 인지정향 측면

비정치적인 환경에서의 습득, 정치적인 환경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은 정치문화의 생성과 변화에 속한다. 전자는 가정과 학교 동료 등의 환경을 일컫고 후자는 정치적 사건이나 정치과정에서 경험하거나 기억하는 것으로 모두 정치 문화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준다.(어수영, 2008) 인터뷰이를 통해 확인된 직접적인 정치경험은 정치와 지지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정치참여 계기, 지지하게 된 이유라는 항목에서 확인된다. 응답의 공통점에서 노무현대통령 서거와 이때 등장한 현 대통령의 대처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강한 인상이 정치참여로 귀결된다. 노대통령의 서거는 이들에게 부채의식을 주었고 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켜야 하는 명분으로 작동한다. 소수 의견으로 세월호 사건-기혼 여성과 남성이 응답하였으며 정부의 대응 부재가 공분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과 문대통령의 당대표 때 직면한 위기의식을 정치활동의 계기로 설명한다. 정치적 혹은 사회적 사건 또는 상징적 인물과 사건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강한인지를 형성하며 공동행위를 유발하게 한다. 이 인지는 정치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정치체제에 소신을 갖게 된다. 인터뷰이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행위는 하나의 정치 문화적 지각이며 흠어진 개개인을 일정한 행위로 유도하는 정치 정향을 의미한다. 스스로 주권자로서 거침없는 이들의 정치적 행보에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 종속과 해방의 이념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이념 성향은 기존의 기저인 보수측의 반공주의

와 반급진주의의 냉전이데올로기 그리고 진보 진영의 급진적이며 투쟁적인 노선과는 달랐다. 또한 추상적이기 보다 현실적인 것을 지향하는 클라크의 개념인 “새 정치문화의 특징”²²⁾에 부합되며 이들은 극단주의를 경계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들의 이해는 첫째, 반공에 대한 인지이다. 이들에게서 반공 이데올로기는 개인과 사회 현실이라는 분리된 이중적 사고가 확인된다. 개인 스스로는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고 규정한다. 즉 반공주의에 편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부의 남북교류 정책에 대한 일체감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총체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에서 완전한 해방을 예측할 수는 없다는 부언은 북한이라는 존재적 사실과 이 사실은 언제나 정부에 따라 또는 그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따라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재 정렬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전쟁 발발에 대한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더불어 이들은 한국사회가 이데올로기로 부더의 완전한 자유는 확신하지 않지만 시간의 경과에 의해 점차 소멸된다는 낙관적 태도를 취했다.

두 번째 진보에 대한 관점이다. 진보라고 스스로의 이념을 밝히면서도 무질서, 과격한 투쟁에는 비판적이며 거부적이었다. 노총²³⁾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총의 협상테이블과 마주하지 않고 투쟁 일관적 태도, 변하지 않는 행위를 지적하고 이익집단으로 규정하며 노총과 노동자를 분리하고 있다. 점진적 변화를 원하며 포용적 이념을 추구한다. 살펴본바 같이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진보이기 보다 중도 실용으로 여겨지나 한국사회 정치의식의 중도성향 유권자와 같

22) 클라크(2006)의 새 정치문화라는 용어를 인용한 것으로 클라크의 새정치문화란 기존의 좌, 우파의 특징과 함께 일반시민의 정치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참여를 위해 효율적 정부화를 의미한다.

23) 최장집은 노동 없는 시민사회로 한국 노동자가 스스로 정치적으로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분리 현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은 맥락인지는 추후의 조사로 진단해 볼일이다. 또한 이들은 지금은 폭력으로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다를 강조하며 동시에 자신들의 집회문화도 소개한다. 집회에서는 노래와 이야기가 있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즐거운 집회라는 것이다. 보수, 중도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들도 급진주의는 추상적이며 비현실적임을 지적한다. 이 같은 인식은 달라진 집회문화의 반영이며 비폭력으로 탄핵을 이끈 한국사회 정치문화와 맥을 같이 한다.

세 번째 사회경제 이념에서 보여주는 이중성이다. 재벌정책에 관한-해체-질문에서 드러나듯이 해체를 반대하고 대신 규제 강화를 통한 통제를 원했다. 예컨대 합당한 과세, 불법 방지 등이다. 경제영역의 이념은 보수적이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에 의한 기업 해체는 합당하지 않다는 답에서 확인된다. 사회영역의 복지는 어떤가? 복지확대는 찬성한다. 스스로에게 부과된 세금을 기꺼이 납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최저임금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해체 반대와 세금 납부 의지나 최저소득 보장 등의 상반된 경제관념은 대통령에 대한 열정이 뒷받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인터뷰이들이 대부분 중산층이라는 점도 요인에 포함될 수 있다.

부가적 조사로 첫째 ‘집회의 자유’ 측면에서 반대 진영의 집회에 대한 의견이다. 동시대에 공존하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으로 여기지만 행위와 가치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두 번째 ‘스스로 판단하고 참여한다.’의 강조이다. 시민단체와 결사체의 매개를 통한 참여 즉 기존의 시위와 집회의 동원에서 탈동원의 성격 변화이며 연대라는 용어로 집단행동의 구심력을 대체하고자 했다.

연구대상자들은 추구하는 가치, 행위-적극적인 참여-와는 별개로 성장위주의 경쟁정책을 싫어하면서 폭력과 무질서의 투쟁적 행위에는 거부감을 드러냈다. 피파노리스(피파노리스, 2007)의 연구에 의하면 각

영역에 따라 다른 성향의 결과는 2000년 미국의 인터넷 문화 활성화와 사이버 문화의 성격과 정치가 대중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정치적 태도 분석에서 확인되는바, 사회적 의제는 신좌파 성향을,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우파 성향을 보이고 있다. 클라크(클라크, 2006:9-13)는 새정치 문화 분석 요소로 전통적인 좌, 우파 의미 변화, 사회 이슈와 경제 이슈의 구별, 시장개인주의와 사회적 개인주의 성장, 복지국가에 대한 의문, 이슈정치와 시민참여의 확대, 교육 수준은 높고 부유한 개인을 새 정치 문화의 경향으로 명제한다. 위 학자들의 분석과 같이 이들에게서 정치문화 변화의 유사한 경향성이 보여진다.

3. 정치문화적 관계

1). 스마트한 시민

실로 현대사회는 네트워크 일상화 사회이다. 강장묵(2009)에 의하면 네트워크는 물리 공간-현실공간-으로 감시, 통제가 가능한 다수의 센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정보 소통의 방식과 내용을 구조화-트위터가 웹 2.0을 통해 개인 간 문자와 일상을 모아 새로운 가치와 연대의 의미로 해석하는 기술과 서비스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사로움에서 벗어나 전문가적인 통찰력, 사회적 합의와 정보를 이끌어 내야한다.²⁴⁾ 공간이 합쳐진 상태를 융합공간이라 하며 현재는 물리공간과 가상공간이 융합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현대의 정치참여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의 융합적 네트워크이다. 이들은 인터넷이 만들어 준 세력이며 인터넷이 이들의 주 활동공간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한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탐구가 용이하여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 기사에 대응하고 흥

24) 니콜라스 네그로폰(1999; 강장묵, 2009:18)은 오늘날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것은 보기보다는 인터넷을 즐기는 편으로, 두 번째는 이 질서정연한 무리는 리더 없이 단순한 조화와 규칙 안에서 책임 있는 집합의 결과물이나 개별 행동체로 소개한다.

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포털사이트 기사 중 오류나 비사실적인 기사에는 바른 정보 달기 활동을 한다. 정보 교류에 대해서는 SNS 및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받기도 내보내기도 하는데 정보를 받는 측면에서는 기존 미디어와 더불어 소속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사실 확인을 하고 이 내용을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보낸다. 소속 사이트에서 정보에 빠르고 깊이 있는 회원의 각종 기록 기사와 사실 여부 확인 가능한 정보 제공으로 이를 적극 활용 도구로 삼는다. 또 다른 정책 입수 창구는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 홍보 사이트이다. 이와 같이 가상공간에서 네트워크는 정보의 양방향통로로 활용되고 현실공간에서의 네트워크는 집회 및 소모임으로 연결된다.

인터넷과 네트워크 일상화는 집중된 권력을 배제하고 분산된 권력의 집단적 힘을 추구하는 한편 계속해서 권력의 분화로 이어지는 정치지형의 변화를 엿보게 한다. 또한 인터넷 특성상 지역별 편중 현상이-수도권에 집중적이긴 하나 기존 각 당의 당원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비교적 완화되었다. 1970년 중반 TV가 보급되면서 정부는 정부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아 일방적인 보도와 각색된 보도로 시민을 우민화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역기능은 오히려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저해요소였다. 그러나 인터넷이 활성화 된 오늘날은 인터넷으로 인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고는 있지만 인터넷은 양방 간 소통과 개인의 선택에 의한 정보 취득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 실시간 소통으로 시민 행동을 강화하는 촉진요소요 네트워크 자체이다.

2). 정치 참여의 특성

첫 번째는 인물위주의 정체성이다. 흔히 정치적 정체성은 “이데올로기적 정체성”(Cohen, 1985; Berzen, 1997; Berezen, 2012), “지방 혹은 지역 정체성, 국가 정체성”(Andrew and Berezin, 1977; Berezen, 2012)

3가지를 의미한다. 정체성은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베레진이 분류한 이데올로기, 지역, 국가 외에 한국사회는 인물 정체성을 더할 수 있다. 인물 정체성을 덧붙이는 근거는 철저한 대통령 중심의 정체에 기인한다. 인물중심의 특성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드러난다. 지난 한국사회에서 선거는 관건이 작용한 후진적 풍토가 만연했지만 관건과 동원에 취약한 당시 야당이었던 3김의 대표 정치지도자의 유세장에도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인파는 엄청났다. “김대중”,²⁵⁾ 김영삼 두 정치인의 유세장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그나마 엄청난 지지 열기는 유세장에서 만이었다면, 현재는 유세장에 국한하지 않고 지지하는 정치지도자가 집권하는 기간에도 활발한 정치참여를 하고 있다. 물론 인터넷 상용화와 정보 습득의 용이함도 정치참여 및 일상의 지지에 대한 기여요소이지만 이는 정치 환경과 참여 형식의 변화이다. 또한 민주화의 산물로 정책 과정에서 의사결정권자로의 참여로 전환을 의미하며 유권자로서 투표와 연관된 단원적 정치참여에서 주권자로서 정책 과정에도 참여하는 다원적 정치참여라는 점이다.²⁶⁾ 그러나 이들 역시 대통령 중심이다. 이는 가시적으로 정치참여의 발전된 형태로 평가하나 정치참여 내면에는 여전히 대통령 혹은 인물위주의 정체성이 작동하고 있다. 사실 후보자의 이미지가 투표로 연결되는 사례는 비단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미국 및 서구사회에서도 나타난다. 후보의 인격과 연설 기술 등의 요인이 작용하는데 미국 역대 대통령의 연설은 많은 지지자들의 환호하게 했다. 그러나 서구사회는 제도권 정치가 안정화 되어있다면 한국사회는 정당이 정치체제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상황에

25) 1970년 4월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후보 장충단 유세에는 30만명 이상이 몰렸다. 인물 위주의 선거와 정치풍토가 두드러지는 현상은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정당의 역할을 공고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6) 다원적은 본 글의 개념으로 선거 시 유권자로서의 참여를 단원적으로, 확대된 개념 즉 정책과 개인의 일상의 삶과 연관된 정치참여를 다원적으로 규정했다.

서 경쟁력 있는 인물 위주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정당은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해쳐 모여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주의 본연의 성질은 공공성과 제도가 기반 된 정치참여가 안정적이다

두 번째 특징은 비조직적, 비계획적 참여이다. 1960년 4.19와 4.19 전후의 민주화 운동의 모든 시위는 학생이 주축을 이루었다. 학생들은 조직적이지도 계획적이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일어났다.(서종석, 2016)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이 가져다 준 개인의 집단화 현상은 분명 새로운 정치풍토이나 민주화 운동의 학생 시위문화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 공고화 이후 체제와 제도를 위한 시위나 집회는 개인의 삶을 위한 정치참여로 바뀌었을 뿐, 비계획, 비조직적 특성은 유지되고 있다.²⁷⁾ 분석결과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정책 의사결정의 정치활동에 버금가는 사회적 재난, 기부 행위로의 확대로 연예인 팬덤²⁸⁾ 문화와 유사한 방식이 발견되었으나 이면에는 지지하는 통치자의 위기로 느껴지는 상황인식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차원에서 사회에 어떤 기여의 목적이 있었다. 가령 4월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자 돕기 성금 모금이 하루만에 1억을 넘겼고 이를 기탁하였다.²⁹⁾

27) 달톤(2010: 82)의 정치참여 유형에는 “투표, 캠페인 활동, 공무원의 직접 접촉, 자치 단체 활동, 향의의 논쟁적 정치활동과 인터넷 행동주의로” 분류된다. 오늘날 한국사회 정치참여 역시 동일한 유형으로 다 전개되고 있다. 확대된 정치참여는 특정 매개체 없이 상황에 따라 발생한다. 예컨대 청와대 국민청원, SNS를 이용한 주장 피력 등이다.

28) 아이돌과 연예인 팬덤 문화에 익숙한 40대 이하 지지층들이라고 전제해 팬덤 활동과 정치참여 행위를 동일하게 표현 할 수 있으나 본 조사 대상자들에게서는 팬덤으로 정의할 수 없었던 것이 팬클럽 활동 여부에 대한 질문을 부가적으로 한바 40대 남성 1명, 주부 2명, 20대 여성 1명으로 4명이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열성적 비열성적-단순 팬클럽가입-으로 나뉘어진다.

29)뉴스1(2019). 4월 7일 “文대통령 팬카페 강원 산불 성금 2억 모았어요.”

4. 시민문화와 민주주의

이들은 위임된 권력을 사용하려는 일반적 참여민주주의 정치 경향과는 달리 위임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한다. 적극적인 참여형과 신민형의 특성인 충성심이 혼합된 알몬드의 시민문화에 적용하면 연구대상자들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고 이와 연계되어 정치참여가 활발하다.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 펼치는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한다. 정책 홍보와 댓글달기, 여론전에 적극적이며 심지어 정책의 극대화를 위해 사회적 순기능적-모금운동, 세금 잘 내기, 기본 질서 지키기, 집회 후 정리정돈하기 등- 활동을 다양하게 실천한다.

달을 비롯한 현대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정치참여는 참여를 통한 제도 수립 그리고 행위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정책 결정을 의미한다. 요컨대 다양한 정치참여의 총합이 민주주의 상태를 견인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지지자들의 다양한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할 것인가? 다음은 시민 문화적 요소와 민주주의와의 개연성이다.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로 상징되는 직접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자유주의를 세 가지 전통으로 부른다. 그리고 공화주의는 제도적 장치보다는 한 사회의 성격, 시민의 태도, 시민의 질적 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정치참여의 적극적인 시민으로 공공선에 대한 헌신 그리고 배제 없는 권리와 혜택을 받는 시민으로 규정한다. (최장집, 2004) 민주주의를 전통적 이념에 입각하여 이해한다면 배제 없는 권리와 혜택, 평등에 근거한 공동체주의는 공화주의적 요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권리와 혜택의 보편화와 공동체 강조 혹은 우선 정책은 사회주의로 오인되고 있다. 나아가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공산주의로 연결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왜곡된 자유주

의와 공화주의적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진영 간의 논쟁으로 점철되었고 양 진영에서의 두 이론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주의 내면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한 사회가 어떤 가치와 이념을 수용하는가에 따라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고 사회적 갈등과 통합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성장보다는 함께 살기를 답한 인터뷰이들은 민주주의에서 ‘모두’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적 공동체를 동일시를 함의한다. 최저임금과 재벌과 기업으로 대표되는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함께’, ‘공동체’, ‘상생’이라는 단어의 거론이 많았다.

5. 정당민주주의

2015년 ‘더불어민주당’³⁰⁾의 경우 1년에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인 권리당원 규모가 8만명이었다면 연 3회 이상 당비 납부 당원인 권리당원은 약 4만 명으로 추정된다.³¹⁾ 12월 16일 온라인 입당 시스템이 가동되자마자 한 달여 동안 10만 여명이 가입하였다. 이전에는 호남당원이 여론의 중심이었으나 이때 가입한 온라인 당원 중 35,000여명이 2016년 8월 27일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으로 투표의 향방을 가리는 핵심으로 떠올랐다. 온라인 가입당원들은 대부분 당시 “문재인당대표 체제”³²⁾를 지지한다고 나왔다.

모두가 대통령지지자로 조사대상자 1명³³⁾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다. 이들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나 정당과 정치권을 불신하고 비민주영역으로 지목하는 반면 자신들의 활동의 한계, 즉 실체가 없는

30) 2015년 12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 변경 발표

31) 오마이뉴스(2015). 12월 30일 “야권 비주류의 ‘탈당 러시’, 차라리 잘 됐다.”

32) 시사저널(2016). 1월 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신규 온라인 입당자 대다수가 ‘문재인 대표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33) 청년정당인 우리미래당에 가입한 전적이 있으나 현재는 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조직의 대안으로 정당지역위원회 활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³⁴⁾ 당지역 위원회를 통해 조직화, 세력화 나아가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지는 인터넷 공간이 담론의 장으로 혹은 조직화의 한계로 드러남으로 제도 편입 활동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지이유에서 밝힌 온라인 입당은 곧 당원 신분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당에서 활동하려는 의지와 정당에 가입된 사실은 정당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 여부를 떠나 안정된 정당체제에서 활동을 모색하는 기조와 같은 맥락이다. 조사 대상자들은 2015년 “민주당 온라인 당원”³⁵⁾ 모집 시 다수 입당했으며 일부의 이전 가입자도 적극적인 활동은 2015년부터로 조사되었다. 입당 이유는 당비 납부와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으로 당을 통한 영향력 행사와 대통령 재임 시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최장집(2008)은 현대 민주주의를 내용면에서 정당민주주의로 정의하는데 한국정당이 대중적 참여가 부족하고 서로의 특정 이념과 대안 없는 엘리트들의 카르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는 지적하나 민주주의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 집단이 정당이며 정당은 정치 틀 내에서 사회 갈등과 균열을 대변하며 조직하는 조직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매개체로 설명한다. 조사 대상자들에게서는 정당민주주의 필요성 인지는 동일하나 내면, 즉 정당 지지이유는 다르다. 따라서 정당과 지지자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괴리는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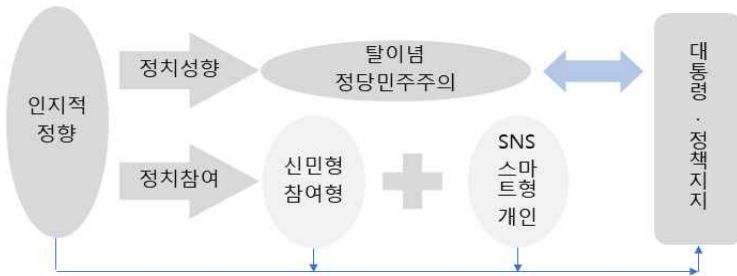
덧붙여 유형의 조직-실체 조직-이 필요 없다는 견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소통 창구는 소속 커뮤니티 즉 밴드나 카페로 정보 및 교류-친숙한 온라인 활동가들끼리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오프라인에서 단발적으로 모임을 갖기도 한다.-마치 레저나 각종 온라인 동호회에서 비정규적으로 오프라인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설명해주었다.- 상황에

34) 온라인에서 동일 지역 거주를 알게 된 일부는 의견을 모아 영향력 있는 활동을 위해 지역위원회를 찾아갔다고 밝혔다.

35) V. 분석결과 정당 민주주의 참조

따라 모이는 가시적 조직을 선호하고 기존의 이익집단 혹은 결사체의 유형적 조직은 모두가 반대하였다. 유형적 조직 반대 이유는 재정문제와 분열, 현실정치 진출로 이용하려는 우려 등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조사대상자들은 인터넷 공간이 주 활동 공간이며 인터넷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시민문화로 형성된 집단이다. 그러나 개별 모두가 인터넷의 한계를 체감하고 한계 극복을 다시 현실공간에서 채우려했다.

〈표 2〉 지지자들의 정치문화적 특성



VI. 결론

일반적으로 정치문화가 의식과 관습으로 모여져 태도로 나타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사회는 긴 시간 군부 권위정권을 거치면서 전반적 국민의 정치의식은 체제 안에서 그대로 따르는 순종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격동의 민주화를 거치면서 통치제도의 변화를 이루었고 나아가 자기의사결정권을 사용하기 위한 정치참여로 시민의 정치 수준은 높아졌다. 정치참여 유형 역시 다양하다. 그중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대통령 지지자들은 2017년 조기대선 후 새 정부가 집권하면서 가시화 되었다. 이들은 반정부 저항적 정치참여가 아

닌 새 정부를 지지 옹호한다. 일명 문파라는 실체 없는 세력들로 이들의 정치참여는 시민주권자요 정치적 주체로 한국사회 정치문화를 이끄는 새로운 정치현상인지 주목하게 되면서 민주주의 주체 세력인가? 새정치 문화의 견인 세력들인가? 포퓰리즘인가?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 현상의 연장선인가? 한시적 현상인가? 질문을 갖게 한다. 이들을 향한 시선은 다양하나 본 글은 조사 대상에 대해 프레임적 논쟁을 지양하고 정치문화현상으로 접근하여 먼저 그 특성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대통령지지자들에 대한 사회 일반적 평가와 본 글의 조사 대상자들의 특징³⁶⁾은 거의 유사했다. 또한 정치문화의 주요한 요소인 정치참여의 주체로서 이들의 행위는 정치 문화적 요소와 부합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인지적 정향으로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경험이 인지 형성의 요소이며 이때 부상한 현 대통령의 행보가 결합되어 이들에게 정치의식으로 자리하였다. 그리고 이 의식은 대통령 만들기과 이후 대통령 수호의 필연성으로 연계되어 집단행동이 되었다.

두 번째, 스스로를 진보 보수 중도보수로 규정함에 있어 탈 이데올로기적이며 좌파 우파에 대한 무의미를 보여준다. 이는 사회성에 있어서는 진보성향을, 경제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점, 남북 화해 모드를 지지하며 반공주의를 배격하면서도 북한이라는 존재에 의한 반공프레임의 소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점은 자신과 사회를 구분하

36) 주간조선 2017년 5월 22일자 기사에서 정의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지지자들을 박사모와 일베와는 다르게 지도부도 없고 오프라인 모임을 갖지 않으며 자본력으로 조직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열성지지자의 한 부류이면서 노빠(노사모)와는 다른, 평소에는 실체가 없고 주로 이슈나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터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반대 여론을 공격하는 게릴라군 같으나 실제로는 정규군 양상의 위력을 지닌 점을 특징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건드리지 않으면 나서지 않는다”로 요약한다.

여 설명하는 양가적 입장으로 북한의 실재와 반공세대와의 공존을 들어 이중적 이념을 보여준다.

한때 영리한 군중이 회자되었다. 이 단어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참여군중이 휘둘리지 않고 능동적이며 주체적 인간이라는 점으로 묘사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특징 중 하나로 인터넷을 매개로 연결되며 정보 교류가 이루어져 수신자에서 송신자, 송신자에서 수신자로 양방 소통의 역할을 한다. 송신자는 사전 정책학습을 많이 한다는 점에서 단순 수신자의 위치와는 다르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참여 활동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외에 모금활동 등의 사회 순기능의 역할에도 적극적이었다. 이상은 세 번째 특징이다. 네 번째로는 예측하지 못했던 정당과의 관계이다. 대의 민주주의가 매우 허약한 한국 사회에서 정당을 조직 대체제로 여기며 정당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온라인 가입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에서의 개인의 독자노선은 그 영향력이 미약하다는 인식의 발로이다.

다섯 번째, 정치문화 모델인 시민문화와 조사대상자의 행보와의 관계이다. 지방형, 신민형 참여형이 복합된 시민문화의 속성이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알몬드의 시민문화 개념을 도입한 것은 이들만의 특징으로 나타난 충성심에 있다. 거부적, 비판적 정치참여 시민이 아니라 충성심에서 나오는 정치참여이다. 조사에서 보여주듯이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전환되어도 적극 지지의사를 표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 목적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시민문화의 높은 참여와 충성심은 정부의 통치 수행에 원활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알몬드와 버바의 4가지 차원의 정치체제, 투입-제도-, 산출-정책과 시책-, 원리에 따르면 능동적인 정치참여의 조합이 최적인 민주주의는 정치문화의 발전을 가져온다.(Almond and Verba, 1964: 16-18; 어수영·한배호, 1996:83)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민주주의 향방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부분에 있어 조사 결과는 공화주의적 공동체주의 요소가 두드러졌다. 한국사회는 오랜 독재와 군부정권을 경험하였으며 지난 정권이 주입한 민주주의 이념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다. 몇 해 전 선별복지 보편 복지라는 논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시민투표”³⁷⁾가 진행되었다. 현재는 복지에 대한 인식이 다소 포용적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한국사회는 최저임금 논란 등 경제와 관련하여 다시금 격론의 회오리장이 되었다. 정치참여는 정권 탄생에 결정적 요인이며 정권의 노선에 따라 정책으로 구현되는 정책은 정치참여 행위자의 사회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순환 논리에 근거하여 매우 중요하다. 사회순환 논리가 민주적 체계 내에서 진행된다면 이사회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이다.

결론적으로 조사의 결과는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치문화에 긍정적 시그널로 여겨 질수 있다. 반면 인터뷰에서 그리고 특징에서 감지되는 우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활동이 구심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동일한 온라인 활동 내의 지지자들 간 신뢰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근원에는 차세대 지도자에 대한 갈라진 옹호와 진영에 관계없이 대통령 의사에 반하는 정치인에 대한 배격이다. 인지도 높은 트위터 계정주 혹은 팟캐스트 유튜버들의 영향력과 파벌형성, 갈등 극대화이다. 다원화 사회는 더 많은 분화가 진행되지만 연대 가능한 분열 보다 배척의 분열은 민주주의 공고화와 상충된다. 이러한 현상은 잉글하트와 알먼드 파월 등의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동료 시민 서로 간 신뢰가 정치 안정화와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라는 이론과 배치되며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분열로 상실된 정치적 영향력은-비록 사회에 긍정적

37) 2011년 8월 24일 실시된 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투표를 제안한 오세훈 시장은 사퇴했다.

영향력이었다 해도- 보편적 정치문화에 이르지 못하고 한시적 현상으로 그칠 수 있다. 개개인의 열성적인 정치활동과 소수의 인지도 높은 인물과 팻케스트 외에 이들을 유인 할 대체제가 없는 것도 요인이다.

두 번째 온라인의 한계이다. 오해와 왜곡 그리고 반목이 무성한 것은 인터넷이 공론의 장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 인터뷰이는 오프라인에서 공론장, 토의장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즉흥적이고 동시적 파급효과의 장점과 정보혁명의 시대에 온라인이라는 통신수단은 정치 지형의 변화를 초래하는 공신이라는 점은 이의가 없으나 온라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계점은 정화와 질서가 필요하며 협의와 속의의 한계 역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정과 중재자가 전무하다.

세 번째 충성심이다.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는 민주주의 정체의 본질인 능동적인 시민참여의 순기능과는 달리 민주주의의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대상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는 인물이므로 자신들 역시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하나 경우에 따라 충성심이 개별적 상수가 되어버려 정치영역에서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회와 공공성에 기반 한 시민의 행동력이 민주주의 견인의 핵심이며 견실한 뒷받침이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는 공공성에 기반 한 행동력과 충성심이 합리적이다. 신뢰감 결여, 개별적 충성, 공론장 부재는 잠재적 불안성을 의미하며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공고화에 걸림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 결과는 개별적 소수의 조사 대상자들로 확증의 오류가 제기되어도 이들을 통해 온라인 활동의 한계점을 정당으로 대체하려는 의지의 확인은 대의제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의 정치권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가능성과 취약한 정치문화 기반의 대의민주주의의 재구축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러나 이 시도는 정당이 이들의 욕구에 얼마나 부응하고 수용하며 간극을 최소화 하느냐 에도 달렸다.

소수의 인터뷰로는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표로 논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운동론과 제도론에 집중되어 있으며 역사적 거시적이었다. 행위론, 특히 조직이나 집단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정치 정향을 직접 다루는 미시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다원적이고 복잡한 현대사회 정치체제는 하부 조직 구성원의 이념, 가치, 선호의 이해가 필요하며 안정된 정치체제는 단위별 사회구성원의 정치문화를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하부 단위별 연구는 다원적 민주주의 제도 하에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갈등과 반복을 최소화 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본 글은 현재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활동 현상이 기존의 반정부 혹은 저항적 정치참여의 성격이 아닌 정부와 지지자의 일체감으로 형성된 정치참여에 주목하며 안정된 정체와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과의 상관성과 정치흐름을 탐구하는 본 연구에 앞선 시론임을 밝힌다.

참고문헌

가) 저서

- 강장목(2009). 『뉴미디어와 소통의 정치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동춘(2006).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 서울: 도서출판 길.
- 김성수(2015).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교정치』. 서울: 글로벌콘텐츠.
- 김영정(1988). 『집합행동과 사회변동 : 군중행동, 사회운동 및 혁명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현암사.
- 박구용(2018). 『문파,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 서울: 메디치.
- 서중석(2016). 『한국현대사 60년』. 서울: 역사 비평사.
- 이지호 외(2017). 『탄핵광장의 안과 밖』. 서울: 책담.
- 임혁백(2003). 『시장. 국가. 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사.
- 조희연 편(2001).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서울: 나눔의 집.
- 최장집(2004).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2008).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생각의 나무.
- 한국정치학회편(2008).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 vol.3』. 파주: 법문사.
- _____(2008).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 vol.4』. 파주: 법문사.
- 한배호(2000). 『비교정치론』. 서울: 법문사.
- _____(2003). 『한국정치문화와 민주정치』. 서울: 법문사.
- 현대사회연구소(1986). 『한국정치발전의 현실과 과제』.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나) 논문

- 박찬욱(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4집 제1호: 147-193.
- 어수영·한배호(1996). “한국 정치문화의 변화와 지속성.” 『한국정치학』, 30,3: 81-104.
- 이관열·박경숙(2018). “정치문화 개념의 일고찰 : 서구 시민정치문화의 형성과 발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이론학회』, 통권 제53호: 65-86.
- 조영호·김용철(2017). “한국 민주주의 불안정의 문화적 기반 : 한국인들은 어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가?.” 『한국정치학회』, 제51집 제5호: pp.5-28.
- 천정환(2018). “1987년형 민주주의’의 종언과 촛불항쟁 이후의 한국민주주의 : 대중민주주의의 문 화정치를 중심으로.” 『문화과학사』, 통권 제94호: 22-44.

다) 번역본 및 재인용

- Anderson, Benedict(2007). 『상상의 공동체』. 윤형숙(역). 서울: 나남;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 and extended*. London: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Verso, 1991.
- Clark, Terry Nicholas(2006) 『새정치 문화는 정말로 존재하는가』. 이승중·정원호(역).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The new political culture*. Westview Press.
- Dahl, Robert Alan(1999).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조기제(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Democracy and its critics*.
- Dalton, Russell J(2010). 『시민정치론』. 서유경(역). 2010. 서울: 아르케; *Citizen politics :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CQ Press, 2008.
- Giddens, Anthony(1998). 『좌파, 우파를 넘어서』. 김현욱(역). 서울: 한울; *Beyond left and right : the future of radical politic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of Oxford, 1994.
- Goodwin, Jeff and Polletta, Francesca and James, M. Jasper(2012). 『열정적 정치』. 박형신·이진희(역). 파주: 한울아카데미; *Passionate politics : emotions and social movemen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 Held, David(2015). 『민주주의 모델들』. 박찬표(역). 서울: 후마니타스; *Models of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Ltd, 2006.
- Hirschman, Albert(1994). 『열정과 이해관계』. 김승현(역). 서울: 나남출판; *The passions and the interests : political arguments for capitalism before its triump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and Welzel, Christian(2011). 『민주주의는 어떻게 오는가』. 지은주(역). 파주: 김영사;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 Norris, Pippa(2007).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이원태외(역). 서울: 후마니타스; *Digital div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Platon(2005). 『플라톤의 국가론』. 최현(역). 파주: 집문당.
- Sabine, George H. and Thorson, Thomas Landon(2005). 『정치사상사 1, 2』. 성유보·차남희(역). 서울: 한길사;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 1-2*.

라) 기타

국민일보(2018). 3월 19일. “[문팬 또는 문빠 탐구], ‘문빠=키워드 워리어?.. 그 것은 편견이었다.’”

_____ (2018). 3월 19일. “[문팬 또는 문빠 탐구], ‘조직 없이 움직이는 6 만~10만명 자발적 정 치 팬덤”

_____ (2018). 3월 20일. “[문팬 또는 문빠 탐구], 팟케스트로 논리 무장. 트윗 날리며 여론전”

_____ (2018). 3월 22일. “[문팬 또는 문빠 탐구],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것..’ 열정 넘어 反지 성주의”

_____ (2018). 3월 22일. “[문팬 또는 문빠 탐구], 방해되면 피아 구분 없이 공격”

뉴스1(2019). 4월 7일. “文대통령 팬카페 "강원 산불 성금 2억 모았어요.”

시사저널(2016). 1월 6일. 1월 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신규 온라인 입 당자 대다수가 ‘문재인 대표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2015). 12월 30일. “야권 비주류의 ‘탈당 러시’, 차라리 잘 됐다.”

주간조선(2017). 5월 22일. “한·경·오 공격하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 그들은 누구?”

Abstract

A Study on Polit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Presidential Supporters

Soon Nam Kang

(Graduate School of Sungkonghoe University)

This article approaches the political and cultural theory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president's supporters after the early presidential election in 2017.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supporters: factors of participation, types of participation, ideology, democracy, policy preferences and organization. Also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supporters is a facet of political culture-citizen, the sovereign of plural democracy.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onfirmed by introducing and interviewing relays with a small number of subjects.

As a result, the first cognitive orientation. These factors contributed to political events and the recognition of the characters, such as the shock of the death of President Roh Moo-hyun and the appearance of President Moon Jae-in. Second, representative democracy. Despite the existing concern that representative politics is weak compared to the dynamics of current political citizens, the willingness to gain political efficacy through representatives was strong. Third, smart citizens. Proponents were well-versed in the Internet and had a strong knowledge system that actively utilized the Internet network to support, promote, and counter the president and national policies. Fourth, the complexity of ideology. It aims at post-idealism and communitarianism, but it is progressive in society and conservative in economics.

They have a high political orientation to participatory democracy. This is a facet of political and cultural phenomena. On the other hand, participatory motifs are participatory due to loyalty towards individuals rather than the essential political participation of democratic identity based on publicity. Therefore, in order for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to become a new political culture in the future, the scale of their actions must be sustainable and

environmental factors are also important. It is the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politics and the harmony with the general public.

Key Words: political participation, actors, Presidential supporter, political culture, democracy

논문신청일: 2019.07.18.

논문심사일: 2019.07.26.

게재확정일: 2019.08.11.